

아케무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1-2)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사순 제1주일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막에서 부르짖는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말씀의 빵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절제와 기도로 끈질긴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제1독서

신명 26,4-10

• 제2독서

로마 10,8-13

• 복음

루카 4,1-13

• 영성체송

마태 4,4

• 입당송 시편 91(90),15.16

• 화답송 시편 91(90),1-2.10-11.12-13.14-15(©15ㄴ 참조)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복음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맞서는 교회를 지켜 주시어, 주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살피 주시고, 모든이가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연대로써 실천하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이신 주님, 위기에 놓인 가정 공동체를 살피 주시어, 갈등으로 상처입은 구성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되어 서로서로 지켜 주며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아캠] 온라인 사순 특강 (2차)



- ▶ 일 시 : 3월 26일 (수) 20시 (UAE 기준)
- ▶ 강 사 : 이미숙 루치아 수녀님(살레시오회)

[아캠] 전담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 카이로(이집트) 공동체
- ▶ 기 간 : 3 월 19 일(수) ~ 3 월 22 일(토)



[아캠] 2025년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신청

- ▶ 일 정: 9월 12일(금) ~ 18일(목) / 6박 7일
- ▶ 인 원: 선착순 40 명
- ▶ 순례지: 메주고리에 및 주변 외곽 지역
- ▶ 예상 비용: 1 인당 \$1,200 (항공권 별도*)
- ▶ 접수 방법: 순례 담당 여행사인 '마리아투어'에 직접 신청 (mariatour121@gmail.com)
(항공권 구매 후, 신청서/ 여권 사본 첨부 메일 발송, 신청서는 사무국에 문의)
◆ 중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사무국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희년을 맞아 순례지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항공권 확보 및 호텔 예약을 위해 신청을 서둘러 주십시오.

[교종 프란치스코] 3월 기도 지향

3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바이 공동체>: 복사단 피정



2월 28일 (금)



진춘언 요한보스코 (아부다비 공동체)



천사들이 말하기를, "오, 마리아여! 하느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정화하시며, 세상의 모든 여성들 위에 택하셨다." 마리아는 말했다. "오, 나의 주님이며, 어떻게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말했다. "그것은 하느님께 쉬운 일이다. 그분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곧 존재한다." 이슬람의 꾸란에서 전하는 마리아 주님 탄생 예고 모습이다. 물론 마리아는 마리아마라고 되어 있다. 이를 찾아본 이유는 아부다비 가톨릭 성당과 이웃해서 서 있는 모스크의 이름이 "Mary, Mother of Jesus Mosque"였기 때문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모스크라니! 이슬람은 무척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 예수와 마리아라니!



Mary, Mother of Jesus Mosque 사진, Wikipedia

아부다비 시내에는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모스크를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외래 종교시설들은 모두 한곳에 모여 있는데, 로마 가톨릭인 St. Joseph 성당이 있고, 성공회 성당인 St. Andrew's Church, 동방정교회 그리고 콥트 교회가 있다.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를 위한 공간도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성 요셉 성당과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커다란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 특유의 높은 종탑들이 있어 더 도드라져 보인다. 길을 물어 처음 성당을 찾았을 때, 모스크의 높다란 종탑이 멀리에서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성 요셉 성당은 1965년 2월에 바닷가쪽인 코니쉬에서 축성되어 20여

년 사용되다가, 1983년 2월에 시내 중심가인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부지는 UAE 대통령이 기증했고, 건물은 교인들의 모금으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모스크'의 역사를 찾아보니 1989년에 지어졌는데, 그때의 이름은 대통령의 이름을 딴 'Mohammed Bin Zayed Mosque'였다. 성 요셉 성당이 들어선지 6여 년이 지난 후에 모스크가 지어진 것인데, 굳이 이렇게 가깝게 붙여서 지었는지 그 연유는 내가 알길은 없다. 대략 30년이 지난 2017년 6월 14일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UAE에서는 2016년 정부에 Ministry of Tolerance가 생겼고, 2019년 2월 3~5일 교황 방문이 있었다. 교황 방문을 계기로 유대교 회당, 가톨릭 성당, 이슬람 모스크를 한 울타리에 모아 Abrahamic Family house가 2023년 아부다비에 건설되었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신앙생활은 특별한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길에서건 집에 있을 때건 아잔은 수시로 들려왔다.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로 시내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모습은 수십 년 전 한국에서의 민방공훈련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기도 시간을 알려 준다고 하는데 하루에 다섯 번을 한다고 했다. 내용도 모르는 데다가 음률도 낯설어서 처음엔 무척 이상하게 들렸다. 미사나 공소예식 중의 그 조용하고 경건한 공간에 스피커로 확정된 아잔 소리가 마구 침입해 들어올 땐, 이것이 의도적인 방해가 아닌가 느껴질 만큼 불쾌하기도 했다. 그런 중에 모스크 앞을 지나다가 현관 위 높은 곳에 새겨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된 것이다.

우선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모셔지는지부터 찾아보았다. 예수는 이사로 지칭되며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예언자, 곧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공경을 받는다.





우선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모셔지는지부터 찾아보았다. 예수는 이사로 지칭되며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예언자, 곧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공경을 받는다. 무슬림들은 예수(이사)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알라이히 알살람)이라는 경구를 덧붙인다고 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나 신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철저히 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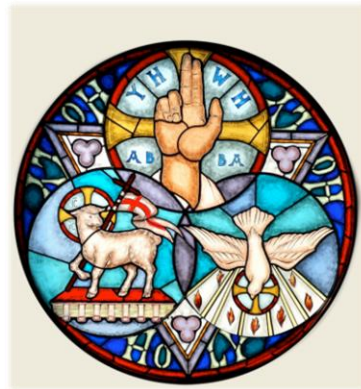
사실 유일신 하느님을 모시고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하는 종교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오지 않았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독립하고, 기독교 내의 여러 종파들로 갈라선 역사들이 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하여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근동지방으로 전파되었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등 근동지방 여러 도시에서 교회 공동체들이 성장했다. 로마제정의 박해가 심했기에 공동체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서기 313년 로마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박해가 멈추고 종교로 공인되었다. 비로소 공동체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별로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교리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파는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본질을 가진 완전한 신이라는 니케아 신조가 확립되며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공표되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재확인되며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아리우스파 교리는 1870년에 시작된 여호와의 증인에서 추종되고 있다.

서기 428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각기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하였다. 마리아가 예수의 인성만을 낳았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가 될 수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어머니(Christotokos)'일 뿐이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431년, 에페소에서 열린 제3차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똑같이 결합된 한 인격 (Hypostasis)'이라는 교리가 확립되고,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언되었다. 성부와 성자가 독립되었다고 믿는 네스토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축출되었으나 동방교회로 유지되어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를 거쳐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경교(景敎)로 불리며 존속했다고 한다.

한편 예수의 신성만을 믿는 단성론도 있었다. 에우티케스는 "예수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오직 한 본성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451년에 열린 제4차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며,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도, 변화하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교의를 채택하였다. 즉, 예수는 완전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된 단성론자들은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서 세력을 이루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콥트 교회, 야곱파 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등을 이루고 있다.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나타내는 그림

이슬람의 시작은 서기 622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헤지라 사건으로 본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동정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고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행한 기적은 성경이 전하는 것과 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소생시켰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예수는 철저히 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다. 예수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날 수 있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늘로 올라갔으며, 언젠가 **최후의 날**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이슬람에서 예수의 재림이 중요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가르쳤으나 듣지 않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을 보냈고, 그래도 듣지 않아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에게는 후에 올 무함마드를 미리 알리는 사명도 있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누구인가. 가톨릭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서기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언했다. 근 현대에 와서는 서기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무염시태) 하였음'을 교리로 선언하였다. 서기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성모 승천 교리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마리아를 신자들의 중재자로 여기며, 성모 신심으로 그녀에게 기도와 전구를 요청한다.



수태고지, 1485년, 보티첼리 작

이슬람에서 예수는 철저히 인성만이 받아들여지므로 마리아 또한 신성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마리아를 특별한 여성으로 기린다. 동정으로 예수를 낳았고, 그녀의 신앙과 헌신은 모든 여성과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된다. 예수의 승천 이후 마리아의 삶이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꾸란에는 없지만, 무슬림들은 마리아가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화롭게 생애를 마쳤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

한편, 1517년 루터의 주도로 시작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원죄 아래 태어난 일반적인 인간으로 간주하며,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신교는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원칙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직접적인 기도만을 인정한다. 전승을 부인하고 성경만 받아들이며 시작된 개신교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무슬림들과 어울려 지내오고 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동생 같고, 딸 같고 아들 같다. 긴 치마를 펄럭이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옛날 고모님 이모님들이 걸어가는 모습 같다. 대부분 친절하고 다정하고 점잖다. 이상하게만 들리던 아잔도 그 내용도 알게 되니 편안해지고 익숙해졌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미사 중 들려오는 아잔소리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는 순간을 묵상하곤 한다. 아직 어린 나이 그리고 정혼한 약혼자가 있다. 당시의 사회 규범은 엄격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절대적인 순종의 순간인 이 내용이 꾸란에는 없다. 예수님이 수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그 고통을 인내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셨고 마침내 승천하셨다. 이스라엘 순례길에 나자렛의 주님 탄생 예고 성당에 들렀다. 예고를 받았던 동굴 앞에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리고 언젠간 필연코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절대 순종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맞는다.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자애로 돌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회원으로, 사제로,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그리고 교황으로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운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이때,
그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제임스 마틴 SJ 신부 -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7> 자비송과 대영광송

주일학교 전례 교육을 마치고 나온 학생이 제게 다가오더니 “선생님, 미사 때마다 ‘자비송’과 ‘대영광송’은 왜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왜 자비송과 대영광송을 바칠까요? 미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의미를 알고 미사 참여하면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비송과 대영광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비송(Kyrie: 기리에)

자비송은 성부·성자·성령 삼위(三位)께 바칩니다. 주님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로 간청하는 노래로, 첫째는 미사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고백(마태 18,20)입니다. 곧 자비송은 “예수님은 구세주·메시아·그리스도·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나오는 눈먼 사람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는 외침(마르 10,48)입니다.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부께 간청함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자께 간청함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령께 간청함

3번 자비를 구하는 이유는 성부·성자·성령, 삼위께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대영광송(Gloria)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높이 받든다는 뜻이며,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찬미의 노래이며 기도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모여 성부와 어린양에게 영광을 드리며 간구하는, 가장 오래된 기쁨에 넘친 기도입니다.

감사와 함께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부르던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시입니다. 성탄날 밤 천사들의 노래로 시작하여 삼위일체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참회와 속죄·기다림의 준비 시기인 대림과 사순 시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일과 대축일·축일 또는 지역의 성대한 축제에는 모두 함께 서서 대영광송을 하거나, 또는 번갈아서 노래하거나 낭송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영광송을 바치면서 미사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 성부께 영광을 드림

○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 하느님의 어린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 성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리며 간구함.

◎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 성령께 영광을 드림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2025년 2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7,818	(2025년 1월 이월금)	출장비	500	(아캠 공동체 사목 방문 출장)	
	후원금	단체	0	성무 활동비	2,000	(아캠 전담 사제: 2월)	
		개인	2,500	가난 기금	245	(2월 아캠기금 5% 적립)	
	납입금	두바이	1,200				
		아부다비	1,200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2,718			2,745		19,973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2,946	(2025년 1월 이월금)				
	모금액	단체	245				
		개인	2,500				
		5,691			0		5,691
	수입 합계	28,409		지출 합계	2,745		25,664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박효진 세실리아

개인(가난기금): (1) 차연경 모니카 (2) 전지은 세로띠나 (3) 정혜옥 아네스 (4) 김화영 라우렌시오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 김보연 안젤라 (055. 360. 0733) (054. 396. 1010)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100% Handmade 100% Fresh Fruits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 특례 입시 전문 -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